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 국내 도입 움직임과 기술 원리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
박동현
2026. 7. 13.

보고서 요약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 음악이 마치 쓰나미처럼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프랑스 음원 플랫폼 디저에서 매일 새로 업로드되는 신규 곡의 44%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하며 하루에 쏟아지는 인공지능 음악의 숫자가 7만 5천 곡, 월 200만 곡을 넘는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음악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맞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음악권리자단체가 인공지능 음악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음악 식별 방법은 사용자가 식별하고 싶은 음원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뒤에 업로드된 음원이 인간이 창작한 곡인지 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곡인지를 해당 인공지능 식별 도구가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기본 원리는 인간이 창작한 음악과 인공지능 음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는 두 음악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다양한 정보를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음악이 인간이 창작한 음악의 특성과 가까운지, 인공지능 음악의 특성과 가까운지를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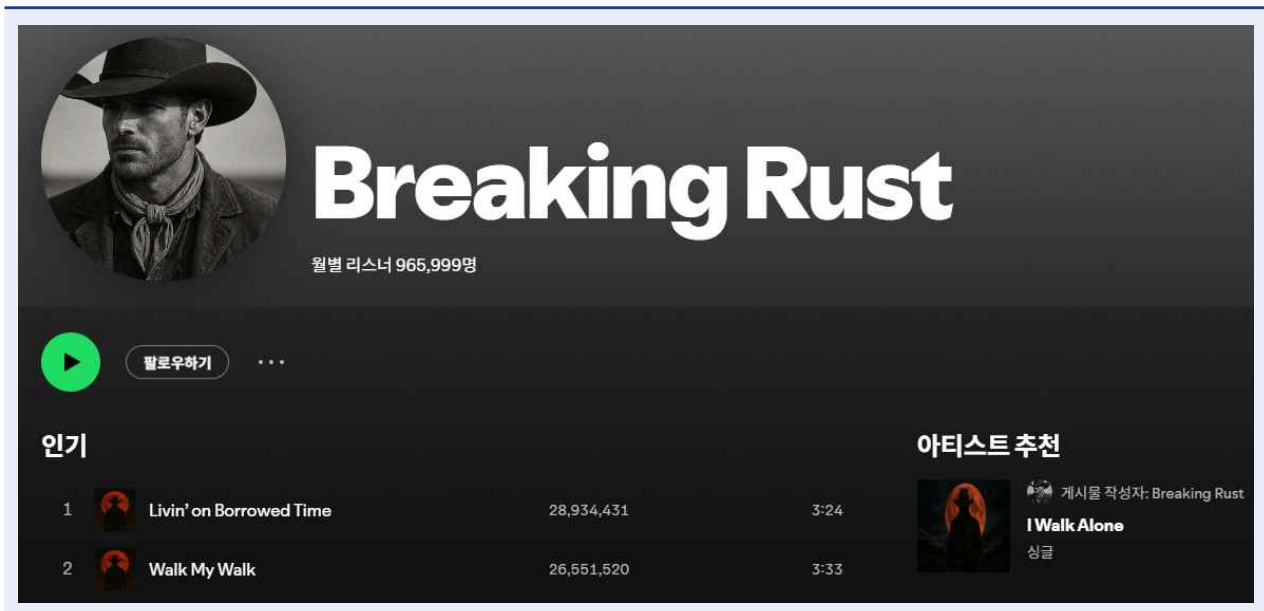
1. 인공지능 음악 범람의 시대

프랑스 음원 플랫폼 디저(Deezer)가 2026년 4월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디저에서 매일 새로 업로드되는 신규 곡의 44%가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음악이라고 한다. 하루에 쏟아지는 인공지능 음악¹⁾의 숫자가 7만 5천 곡, 월 200만 곡을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매일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인공지능 음악을 과연 사람의 청각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 디저가 진행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인공지능 음악과 인간이 창작한 음악을 구별하지 못했다. 동시에 응답자의 80%는 인공지능 음악에 명확한 표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52%는 인공지능 음악의 차트 진입에 반대했다.²⁾

2025년 11월에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수 브레이킹 러스트(Breaking Rust)의 노래 '워크 마이 워크'(Walk My Walk)가 미국 빌보드(Billboard)의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Country Digital Song Sales Charts)에서 1위에 올랐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350만 회 이상 스트리밍되며 인공지능 음악에 대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 브레이킹 러스트의 스포티파이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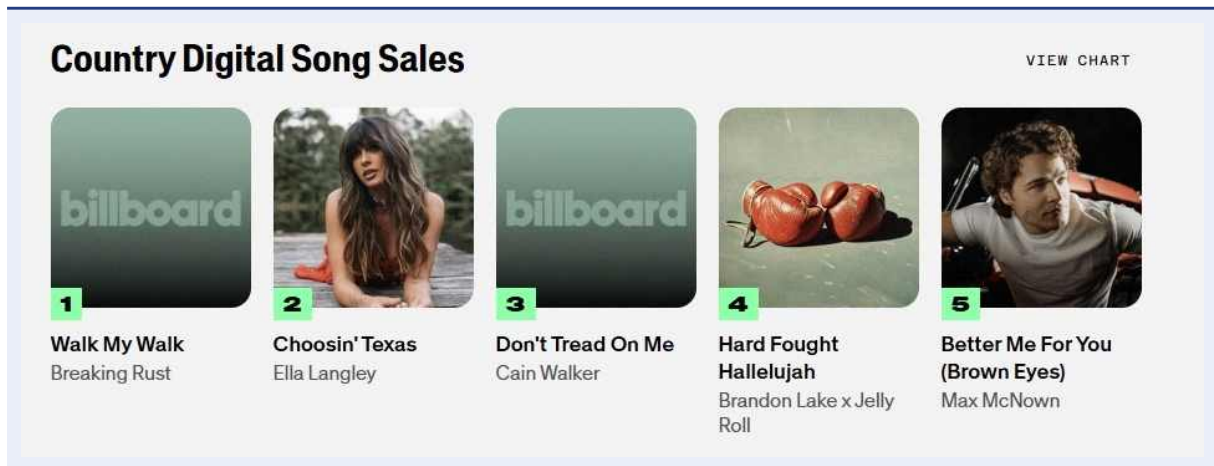
※ 출처: 스포티파이, "Breaking Rust", 2026.07.03. 조회

1) 인공지능 음악: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거나 창작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음악을 의미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과 딥페이크 음악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서에서는 '인공지능 음악'으로 표현하였음

2) tech42, "7만5천 곡, 매일 쏟아진다... 음악 산업을 삼킨 'AI 쓰나미'", 2026.07.01.

해외에서 인공지능 음악이 음원 플랫폼에 등록되어 빌보드 차트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만한 일이 아니다. 브레이킹 러스트의 노래에는 인공지능 음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단순히 음악만 들었을 때 별다른 문제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SNS에는 “목소리가 너무 좋다”, “작곡 실력이 대단하다”, “무대에서 직접 보고 싶다” 등 브레이킹 러스트가 인공지능이 만든 가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글이 다수 올라와 있기도 하였다.³⁾

|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



※ 출처: 연합뉴스, “AI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AI 음악 97%는 구별 못해”, 2025.11.17.

2. 국내 음악권리자단체, 인공지능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 추진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음악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맞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음악 식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를 비롯한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회장 우승현),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등 6개 권리자단체가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맞춰 음악 권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 협력 기구다.

인공지능 음악 식별 프로그램 도입은 인공지능 시대의 음악 저작권 질서 재편을 위한 5대 공동사업 중 하나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음악 권리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의 저작물

3) 머니투데이, “AI 가수, 빌보드 1위 올랐다...”청취자 97% AI 노래 구별 못해”, 2025.11.14.

등록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은 등록이 보류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자율 기재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확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작곡과 실연 분야 검증을 추진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라 작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⁴⁾

3. 국내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상용화 사례

국내 음악권리자단체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 음악 식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을 이용할 것인지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현재 국내에 상용화되어 있는 사례를 조사하여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수준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음악의 식별 방법은 주로 인공지능 음악 식별 도구, 솔루션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되는데, 사용자가 식별하고 싶은 음원 파일을 직접 업로드한 뒤에 업로드된 음원이 인간이 창작한 곡인지 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곡인지를 해당 인공지능 식별 도구가 자동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 미피아 - 'AI 판별기'

국내에서 확인되는 첫 번째 사례는 미피아(MIPPIA)의 'AI 판별기'(AI Music Detection)이다. 미피아는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음악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기업으로, 미피아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AI 판별기'는 업로드한 음원의 작곡, 편곡, 믹싱, 마스터링 등의 요소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람이 제작한 곡인지, 인공지능으로 만든 곡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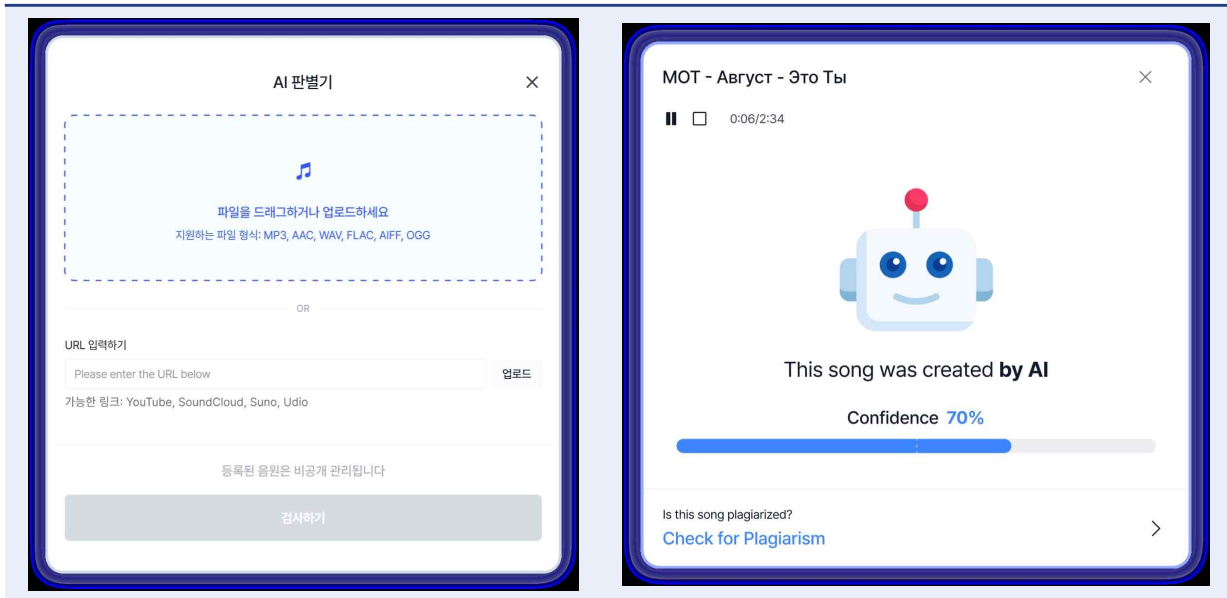
검사 결과는 음원 제작에 인공지능이 사용된 확률을 유추하고 이를 신뢰도로 나타내어 제공되는데 작곡가, 보컬리스트, 엔지니어 등 음원 제작 과정의 역할별로 인공지능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분석하고 수노(Suno), 유디오(Udio) 등 특정 인공지능 음악 생성 서비스의 관련성도 함께 제시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⁶⁾

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도자료,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 AI 시대 5대 공동사업 본격 추진", 2026.05.21.

5) MIPPIA 홈페이지, "AI 판별기 기능소개", 2026.07.06. 조회

6) MIPPIA API 문서, "AI Music Detection", 2026.07.06. 조회

| 미피아의 ‘AI 판별기’



※ 출처: MIPPIA 서비스 소개서, “생성형 AI 판별 서비스”, 2026.07.06. 조회

나. 뮤즈블라썸 - ‘뮤직스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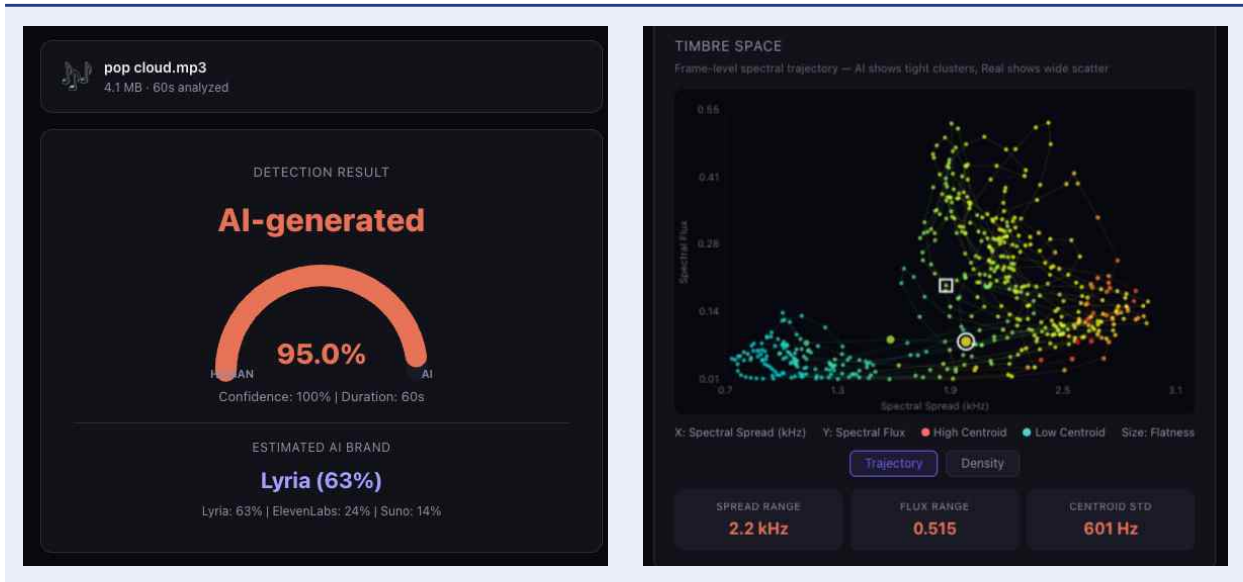
두 번째 사례는 뮤즈블라썸(Muse Blossom)의 ‘뮤직스캐너’(MusicScanner)이다. 뮤즈블라썸은 콘텐츠 보안 및 인증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내 기업으로, 2026년 6월 인공지능 음악 식별 솔루션 ‘뮤직스캐너’(MusicScanner)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뮤직스캐너는 업로드된 음원 파일의 다양한 특성을 분석하여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고 추정되는 확률을 신뢰도 점수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떤 인공지능 음악 생성 서비스를 활용했는지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트랙 전체뿐 아니라 구간별로 인공지능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도 함께 표시한다.

특히 자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학습에 활용하지 않은 미공개 음원을 대상으로 97% 이상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특정 테스트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한 결과이며, 편집이나 후가공이 많은 일부 음원에서는 오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뮤직스캐너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복수의 인공지능 분석 모델을 결합해 판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인공지능 음악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오디오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모델 간 교차 검증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⁷⁾

7) DATANET, “뮤즈블라썸 ‘뮤직스캐너’, AI 생성 음악 판별 솔루션 오픈베타 공개”, 2026.06.30.

| 뮤즈블라썸의 ‘뮤직스캐너’



※ 출처: DATANET, “뮤즈블라썸 ‘뮤직스캐너’, AI 생성 음악 판별 솔루션 오픈베타 공개”, 2026.06.30.

다. 에이드 - ‘에이다’

마지막 사례는 에이드(AIID)의 인공지능 음악 식별 솔루션 ‘에이다’(AI Detecting Audio Reality, AIDAR)로 2026년 6월 5일 출시했다. 에이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식별 기술 기업으로 에이드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에이다’는 메타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오디오 신호 자체를 분석하여, 해당 음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별한다고 소개되어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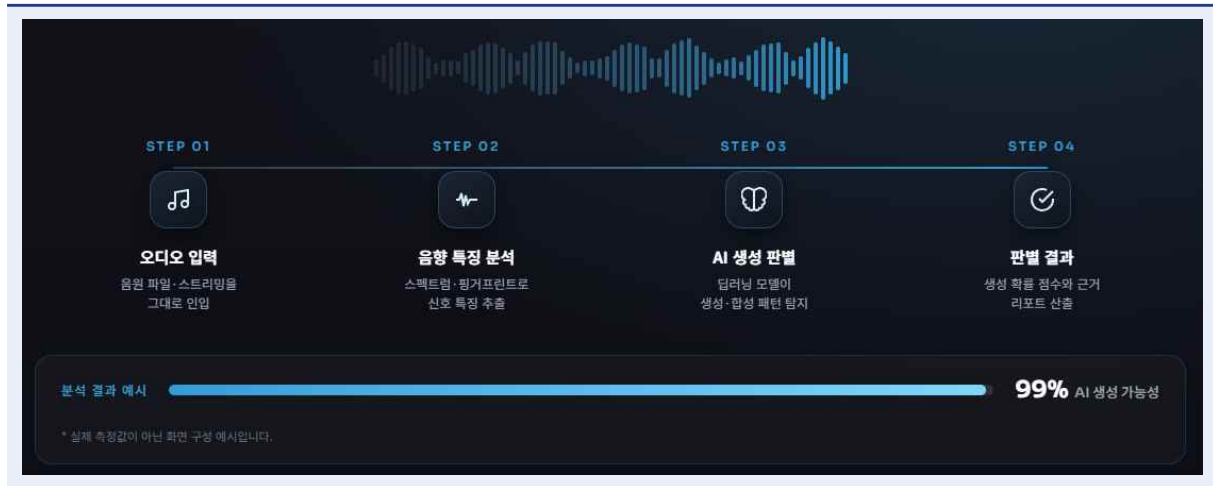
‘에이다’의 핵심 기능은 주요 인공지능 음악 생성 서비스에 대한 검출 기능으로, 수노와 유디오 등 각 서비스로 제작된 음원을 이전 버전부터 최신 버전까지 폭넓게 대응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음원 플랫폼은 신곡 등록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권리자단체는 보유 라이브러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음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30만 곡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 테스트 데이터셋 검증 결과에서 인공지능 음악(Positive) 1만 5511곡에 대해서는 99.9%의 검출률을 기록했고, 사람 창작곡(Negative) 29만 271곡에 대해서는 0.02%(58건)의 오탐률을 나타냈다. ‘에이다’의 처리 속도도 주요 지표로 제시됐는데, 초당 5~10곡 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 10만 곡 규모의 라이브러리를 검수할 경우 약 2.8시간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⁹⁾

8) AIID, “AI 생성 곡 디텍팅 솔루션 AIDAR”, 2026.07.06. 조회

9) 서울신문, “(주)AIID, AI 생성 음원 판별 솔루션 ‘AIDAR’ 출시”, 2026.06.22.

| 에이드의 ‘에이다’



※ 출처: AIID, “AI 생성 곡 디텍팅 솔루션 AIDAR”, 2026.07.06.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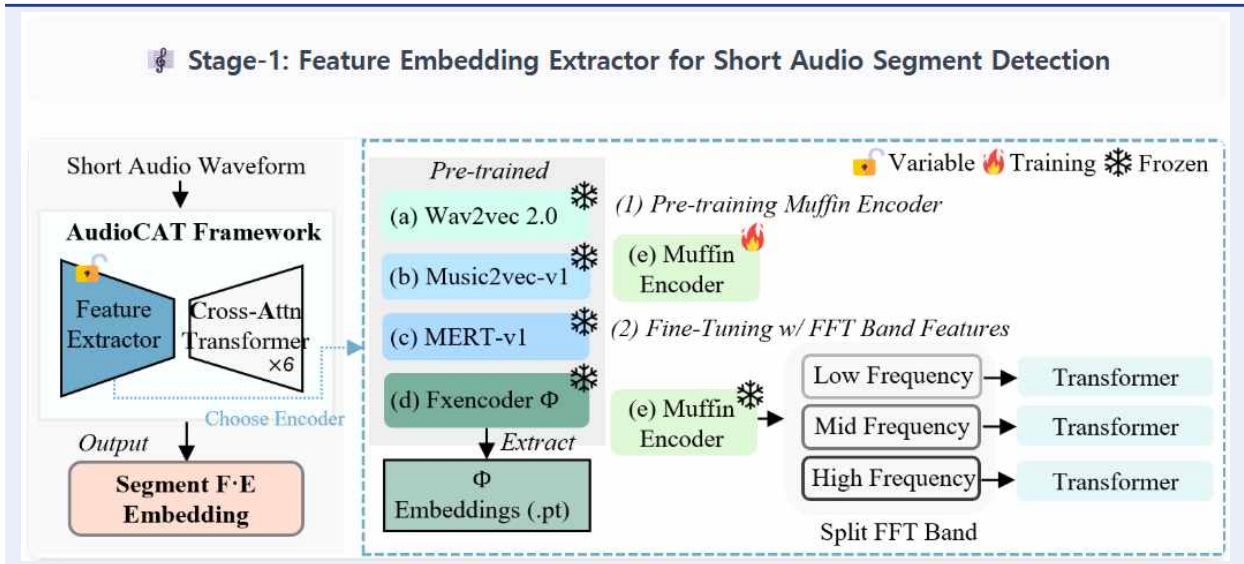
4.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기본 원리는 인간이 창작한 음악과 인공지능 음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는 두 음악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 모델은 음원의 파형, 주파수, 멜로디 패턴, 구간별 반복 구조, 믹싱 방식, 보컬 처리 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해당 음악이 인간이 창작한 음악의 특성과 가까운지, 인공지능 음악의 특성과 가까운지를 판단한다.

자세한 작동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서 알아본 인공지능 음악 식별 도구에 사용된 구체적인 내부 구조와 기술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이는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아 알기 어렵다. 기업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세부 알고리즘이나 학습 데이터는 영업상 비공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기업 미피아의 연구진이 공개한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인 FST(Fusion Segment Transformer)에 대한 연구가 있어 FST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FST의 핵심은 음원의 내용적 정보(Content Information)와 구조적 정보(Structural Information)를 함께 분석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내용적 정보는 각 구간이 가지고 있는 음향적 특징을 의미하고, 구조적 정보는 곡 전체에서 구간들이 어떻게 반복되고 연결되는지를 의미한다. 인간이 만든 음악은 보통 곡 전체의 흐름과 반복 구조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인공지능 음악은 특정 구간의 완성도는 높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FST는 이러한 두 가지 정보를 각각 분석한 뒤, 서로 비교하고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해당 음악이 인간이 만든 음악인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인지 판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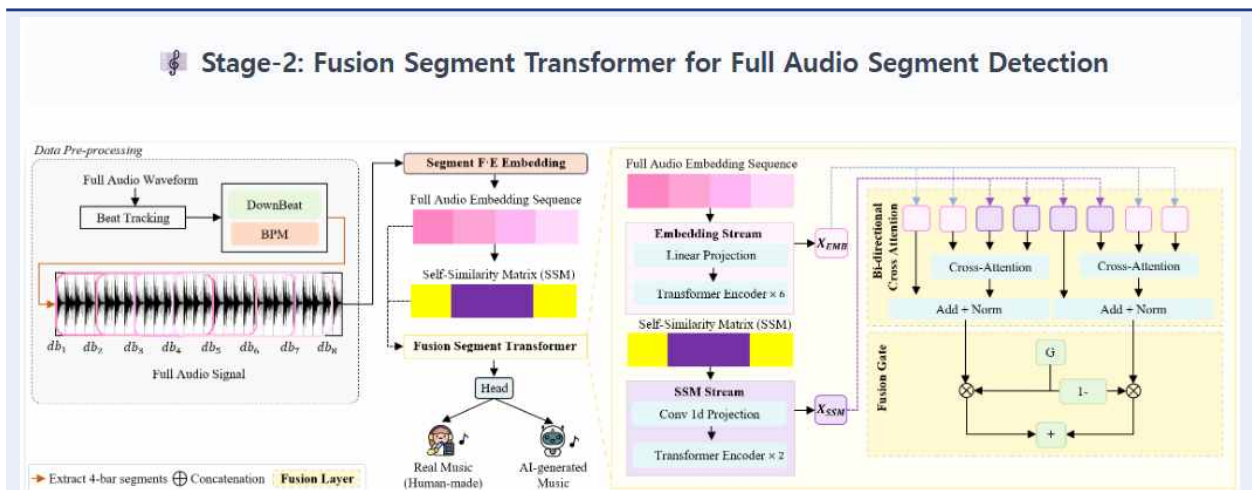
| FST의 첫 번째 단계



※ 출처 MPPIA "Fusion Segment Transformer: Bi-directional attention guided fusion network for AI-Generated Music Detection", arXiv, 2026.01.20.

FST의 기본적인 작동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적 정보를 분석하는데, 하나의 곡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음향적 특징을 추출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향적 특징은 음색, 주파수, 리듬, 악기 사용, 음향 효과 등 음악 안에 담긴 여러 신호 정보를 의미한다. 인공지능 음악은 사람이 듣기에는 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생성 과정에서 특정한 음향 패턴이나 미세한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구간별 특징을 수치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 FST의 두 번째 단계



※ 출처 MPPIA "Fusion Segment Transformer: Bi-directional attention guided fusion network for AI-Generated Music Detection", arXiv, 2026.01.20.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진 여러 구간이 곡 전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때 연구진은 하나의 곡을 박자와 마디의 흐름에 따라 4마디 단위로 나누고, 각 구간 사이의 유사성을 계산하여 구조적 정보를 파악한다. 쉽게 말하면 곡 안에서 어떤 부분이 반복되는지, 구간 간 연결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전체적인 구성에 일관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음악 안의 각 구간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구조적 정보를 SSM(Self-Similarity Matrix)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의 곡을 여러 개의 짧은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에서 추출한 특징인 내용적 정보를 다시 전체 곡의 구조적 정보와 결합하여 인공지능 생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어떤 곡은 특정 음색이나 보컬 처리 방식에서 인공지능 생성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곡은 곡 전체의 반복 구조나 전개 방식에서 인공지능 생성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음악의 내용적 정보와 구조적 정보 중 어느 정보가 더 중요한지를 상황에 따라 조절하여 판단하는 것이다.¹⁰⁾

5.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현재 수준과 한계

현재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은 단순 연구 단계를 넘어 실제 음악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점진적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의 미피아, 뮤즈블라썸, 에이드 등과 같은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디저(Deezer), ACR클라우드(ACRCloud) 등 여러 기업이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을 개발하여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은 어디까지나 해당 음원이 인공지능 음악일 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기술이지, 분석 결과만으로 인공지능 음악 여부를 반드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 음악 식별 도구가 인공지능 사용 확률과 신뢰도를 함께 제공하듯이, 현재까지 100% 완벽한 정확도를 보장하는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분석 결과는 확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며, 오탐과 미탐의 가능성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인공지능 음악 식별 도구의 분석 결과만으로 특정 음악이 인공지능 음악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공지능 음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사람이 청각만으로 이를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공지능 식별 도구는 방대한 양의 음악을 1차적으로 분류하고 검토 대상을 선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보조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정확도가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음원 유통과 플랫폼 내 인공지능 음악 표시, 저작물 등록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0) MIPPIA, "Fusion Segment Transformer: Bi-directional attention guided fusion network for AI-Generated Music Detection", arXiv, 2026.01.20.

6. 시사점

인공지능 음악 기술 유통 플랫폼 랜드르(LANDR)가 2025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전 세계 1,200명 이상의 음악 제작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겨져 있는데, 음악 제작자의 87%가 작업 과정 중 적어도 한 부분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이는 인공지능이 이미 음악 제작 과정에서 작곡, 편곡, 믹싱, 마스터링, 아이디어 구상 등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되는 보편적인 제작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의 음악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음악 제작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일부 활용되었다고 해서 그 음악 전체를 곧바로 인공지능 음악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활용 방식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람이 직접 작곡한 음악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믹싱이나 마스터링을 보정한 경우와, 인공지능이 멜로디, 가사, 보컬, 반주까지 음악 대부분을 생성한 경우는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음악 제작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인공지능 음악이 범람하는 시대에 맞서 앞으로의 인공지능 음악 식별 기술의 발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1) LANDR, "LANDR Study Uncovers How 87% of Musicians Really Use AI", 2025.11.18.

| 참고자료

- tech42, “7만5천 곡, 매일 쏟아진다… 음악 산업을 삼킨 ‘AI 쓰나미’”, 2026.07.01.,
<https://www.tech42.co.kr/7%EB%A7%8C5%EC%B2%9C-%EA%B3%A1-%EB%A7%A4%EC%9D%BC-%EC%8F%9F%EC%95%84%EC%A7%84%EB%8B%A4-%EC%9D%8C%EC%95%85-%EC%82%B0%EC%97%85%EC%9D%84-%EC%82%BC%ED%82%A8-ai-%EC%93%B0%EB%82%98%EB%AF%B8/>
- 스포티파이, “Breaking Rust”, 2026.07.03. 조회, <https://open.spotify.com/artist/3h9rLaviiFj1TeEhdlRpP5>
- 연합뉴스, “AI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AI 음악 97%는 구별 못해”, 2025.11.17.,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7116300005?input=1195m>
- 머니투데이, “AI 가수, 빌보드 1위 올랐다…” 청취자 97% AI 노래 구별 못해”, 2025.11.14.,
<https://www.mt.co.kr/world/2025/11/14/2025111422033082522>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보도자료, “K-음악권리자단체 상생위원회, AI 시대 5대 공동사업 본격 추진”, 2026.05.21.,
<https://www.komca.or.kr/CTLJSP>
- 스타투데이, “AI 저작권 전쟁 본격화… 국내 음악권리자 여섯 단체 ‘원팀’ 결성”, 2026.03.03.,
<https://www.mk.co.kr/news/musics/11977299>
- MIPPIA 홈페이지, “AI 판별기 기능소개”, 2026.07.06. 조회, <https://mippia.com/ko/howtouse/detect>
- MIPPIA API 문서, “AI Music Detection”, 2026.07.06. 조회, <https://docs.mippia.com/api-reference/ai-detection.html>
- MIPPIA 서비스 소개서, “생성형 AI 판별 서비스”, 2026.07.06. 조회
- DATANET, “뮤즈블라썸 ‘뮤직스캐너’, AI 생성 음악 판별 솔루션 오픈베타 공개”, 2026.06.30.,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721>
- AIID, “AI 생성 곡 디텍팅 솔루션 AIDAR”, 2026.07.06. 조회, <https://www.aiid.kr/solution/detect>
- 서울신문, “(주)AIID, AI 생성 음원 판별 솔루션 ‘AIDAR’ 출시”, 2026.06.22.,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60619500160>
- MPPIA, “Fusion Segment Transformer: Bi-directional attention guided fusion network for AI-Generated Music Detection”, arXiv, 2026.01.20.
- LANDR, “LANDR Study Uncovers How 87% of Musicians Really Use AI”, 2025.11.18.,
<https://landr2.prowly.com/435336-landr-study-uncovers-how-87-of-musicians-really-use-ai>